

문학을 활용한 논술 문항 구성 전략

류 수 열(전주대 국어교육과)

1. 논의의 목적

논술이란 무엇인가?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다. 인상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상(事象)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힌 글’ 정도의 규정이라면, 논술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형식과 분량을 세세히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논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스턴트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어린 아이들을 설득할 때에도, 거짓을 말한 사람에게 그것이 왜 거짓인지를 납득시킬 때에도 우리는 논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논술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비화되고 정책적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회 제도의 외양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인생사의 가장 결정적인 고비에 버티고 선 대학 입시의 관문으로 논술이 정착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반응은 더없이 민감해지고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통합 교과형 논술’이 등장하면서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비한 논술 지도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는 이른바 ‘WYTIWYG 현상(What you test is what you get.)’의 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WYTIWYG 현상’이란 시험이 교수-학습 과정과 내용, 방법 등 교실 현장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현상을 뜻한다. 목표가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이 방법을 규정하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를 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겠으나, 정반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논술 교육이 학습자들의 사고력 대신 글쓰기의 형식적 절차에 지도의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학습자 개인의 개성보다는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결과 학생들에 의해 작성된 논술은 박제화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술 교육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논술 고유의 교육적 의의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논술 문항 구성 전략을 다룬다. 문학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논술의 중핵적인 자료로 인정받아 왔고, 그 활용도 또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문학을 활용한 논술 문항도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논술 자료로 문학이 활용되어 온 역사를 통해 문학의 논술 자료적 가치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그 활용 방안 또한 다각도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왜 문학이 논술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출제되었던 문학 논술 문항을 통해 문학이 활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일은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이 글에서는 논술의 교육적 가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항 구성 혹은 문항 출제 전략을 새롭게 구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둔다. 문학을 논술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문학 고유의 특성과 자질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논술 자체의 교육적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 논술을 작성하는 학습자들의 논술 작성 경험이 개인적·사회

적 삶에 대한 성찰과 지적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이는 달리 말해 이 글이 입시용 논술의 도구성이나 실용성을 일단 배제한 채, 개별 교과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다소 이상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전제적 문답

현재 논술에 대한 논란의 이면에는 논술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 논술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이는 문학을 활용한 논술 문항 구성 전략의 전제로도 작용할 것이다.

(1) 논술은 장르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교육사에서 논술이 대학 입시의 제도적 장치로서 등장한 것은 198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였으나, 이듬해에 한 차례 더 시행된 뒤 사라졌다. 그러다가 1994년에 다시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논술은 자연발생적인 장르가 아니라 인위적인 평가 도구로 고안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개별 교과 단위에서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논술도 있다. 이 경우의 논술은 수행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서 주관식 유형으로 분류되는 서술식 평가 유형이다.

물론 논술이 전대미문의 전혀 새로운 글쓰기 유형은 아니다. 넓게 보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글이다. 5세기경에 집필된 중국의 문학 이론서 『文心雕龍』만 보더라도, 설득적 성격을 가진 문체로서 ‘논변[論說과 辨說]’, ‘의대[議論과 對策文]’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고, 천자를 독자로 삼는 ‘장표(章表)’나 ‘주계(奏啓)’라는 문체에 대한 설명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논술의 연원적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이들 장르의 글쓰기가 우리나라 사대부들에 의해서도 무수히 실천되었으니, 논(論), 문(文), 서(書), 기(記), 소(疏), 차(劄), 전(箋), 표(表), 책문(策文)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 이후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글의 대표적인 장르는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건 기사가 사실이나 정보를 위주로 구성되는 데 비해, 사설이나 칼럼은 신문사 전체 또는 그 구성원, 혹은 외부 필자들의 주관적 입장을 피력하는 글쓰기 유형이다. 사설이나 칼럼 또한 태생적으로는 인위적인 장르였으나,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내재적으로 생성된 고유한 문법을 지니고 있다.¹⁾

어떤 글쓰기가 장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장르가 고유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고유한 자질이나 속성을 필요로 한다. 시가 시답기 위해서 운율이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논술은 아직 고유한 내적 장치나 규범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탄생 이후의 세월이 짧은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시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평가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논술은 아직 일상적인 의

1) 이렇게 보면 ‘논술’의 어의(語義)는 두 가지 층위에서 별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텍스트 유형으로서의 논술과 ② 텍스트 목적으로서의 논술이 그것이다. ①은 주로 평가 도구로 활용되는 논술에 해당되며, ②는 설득을 목적으로 한 제반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①에 주된 초점을 맞추되, 개별 교과 단위에서 활용되는 경우와 대입 전형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쓴다.

사소통의 한 장르로 대접받지 못하고 실용성에 근거한 도구로만 존재할 따름인 것이다. 이를 글쓰기의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론적 상황 분석의 준거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현재의 논술이란 입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출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쟁점’에 대해, 채점자를 유일한 ‘대상(독자)’로 하여,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암묵적으로 인정된 몇 가지 형식적 요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논술은 박제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논술이 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된 사고력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글로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선 논술을 제도적 도구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한 장르로 성장해나가기라도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완의 상태인 논술의 장르적 문법을 개방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은 논술이 논리적인 성격의 글로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유형이라는 정도이다. 여기에 논술이 논술답기 위해서 어떠한 자질이나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가 규범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학을 활용한 논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논술에서 ‘나’는 무엇인가?

흔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생명을 객관성에서 찾곤 한다. 전자 제품 사용 설명서 정도의 글에서는 객관이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신문 기사 정도의 글만 하더라도 객관이란 하나의 허황된 신화에 불과하다. 있다면 거기에는 상호주관성이 있을 뿐이다. 하물며 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설득적인 글에서 객관을 미덕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논술에서 ‘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모든 논술문을 떠받치는 주제 의식의 출발점과 귀결점이 ‘나’ 혹은 ‘우리’라면, 이를 배제한 논술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

논술에서는 대체로 인칭 대명사 ‘나’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다. ‘필자’라는 단어로 치환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혹은 한국어 문형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글쓰기 주체를 지칭하는 어떤 단어도 의도적으로 은폐될 수 있다. 개인적 경험을 주장의 근거나 사례로 드는 것이 편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암묵적 규범으로 판단된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례나 근거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노출을 금기시한 결과 위장된 객관성만 강화하고 논술적 수사만 부풀리게 된다는 데 있다. ‘나’의 개인적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논거로서 타당성을 지니고 사례로서 전형성을 지닌다면 충분히 서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나’의 노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를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논술의 박제화를 막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논술 평가의 경험자들이 보고해 주고 있는 가장 흔한 문제점인 이른바 ‘천편일률적’ 답안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 제거된 답안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상징성, 함축성, 전형성 등을 핵심 자질로 거느리는 문학 작품은 더더욱 중요한 논술 자료로 간주된다. 자료로 제시되는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단계부터 논술 작성자 개개인의 ‘나’가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과 창의성의 미덕을 유독 강조하는 입장에서라면 더더욱 그 필요성이 커진다.

(3) 논술은 평가 도구일 뿐인가?

수학은 양식의 과학이라고 한다. 수학자들은 이 세계의 한 일정한 측면을 들여다보고 그 복잡성을 벗겨내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골격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세상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수학은 여러 분야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산술과 수론은 수와 썸의 양식, 기하학은 형태의 양식, 확률론은 우연의 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은 그 각각의 양식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처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수학을 왜 배우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연산 능력의 실제적 필요성을 근거로 답하는 것은 소박하다 못해 빈곤하다. 수학은 그야말로 순정한 논리적 양식의 학문이라는 점, 그래서 수학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 연산 능력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함양에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연산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것이어서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훨씬 신속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수학 교실에서 전자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논술의 정체성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논술을 단지 도구적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그것이 내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문항 구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은, 답안 작성 방향이 지나치게 열려 있지는 않은가, 혹은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고민은 논술이 평가 도구인 한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학습자로서 왜 논술을 써야 하는가 하는 교육 내재적인 질문을 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술이 내재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지니는 교육적 가치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논술 능력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논술이 글쓰기인 이상 논술 능력은 필연적으로 사고력의 문제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논술 능력이 단순히 문장을 매끄럽게 써내는 표현 능력을 넘어서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논술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술 교육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는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해 둘 필요가 있다.²⁾

모든 언어활동은 사고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논술문은 특히 같고 다른 점을 근거로 대상들을 유형화하는 분석적 사고력, 하나의 사상(事象)으로부터 얻은 지적 결론을 다른 사상에 적용하거나 일반화시키는 유추적 사고력, 대상 혹은 현상의 시비와 정오, 진위와 선악을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 인과 관계와 의미의 상하 관계 등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사고력이 문학 읽기 능력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텍스트적 작품 읽기가 이루어질 경우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적 화자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결국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문학 감상을 통해 감동을 얻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추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상적인 수준에서라도 비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논리를 동반하게 된다. 문학 읽기가 이러한 것은 문학이 여타 장르의 글에 비해 훨씬 더 상징적이고 함축적이며 전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을 활용한 논술은 논술 쓰기의 본래적 목적인 사고력 향상에 가장 전면적으로 부합하는 문항 구성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2) 이 점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김대행(2006) 중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을 참조할 수 있다.

(4) 통합교과적이지 않은 논술의 주제가 있는가?

최근에 논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교육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이른바 ‘통합교과형 논술’을 특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개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통합교과형’이라는 수식어의 규정력이 논술 교육 자체의 실현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수준으로 커져 있는 것이다.

이에 독자적으로 성립된 교과,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교과 교육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교과의 독자성 혹은 고유성은 경우에 따라 교과 교육의 전문성을 떠받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20세기 학문의 분과화가 초래한 특수한 현상이었을 따름이지, 교과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은 아니다.

무릇 하나의 학문이 독자적으로 성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 학문 자체의 내적 체계이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 학문 고유의 전문 용어이다. 교과 또한 이에 준해서 독자적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란 곧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직된 지식의 분야로도 설명되고, 교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비된 지식이나 기능의 범주로도 규정되며, 동질적 문화국면들의 논리적·체계적 조직 묶음으로도 정의된다. 결국 인류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직한 것이 교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교과 분화의 중심에는 결국 인간이 놓여 있다.³⁾ 모든 분과 학문과 개별 교과란 인간의 관심사가 발현되는 특정한 국면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매개로 모든 개별 교과는 통섭적 연관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 통섭의 네트워크가 복합적인가 단순한가 하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여타의 교과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속될 수 있는 교과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논술 중의 어떤 한 종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논술의 본래적 성격이나 취지를 드러낸 용어일 따름이다(김영정, 2005).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른바 ‘통합교과형 논술’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새삼스러운 신조어로서 동어반복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술은 정규 교과 수업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 교과 수업의 입체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이자 평가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른바 ‘WYTIWYG 현상’마저도 이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현상은 적어도 교육의 과정(process)을 기준으로 보면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평가의 통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전략적으로 실천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이 차원에서도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삼라만상 중에 문학 작품이 다루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과 학문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은 문학의 주요 소재 혹은 제재였다. 다만 거기에서는 대상들을 개념화하는 언어가 구사되는 반면, 문학에서는 그것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언어가 운용되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문학이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그 통합의 중심축 혹은 교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피닉스(P. H. Phenex)는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의미의 영역’을 6가지로 구별하였고, 피터슨(A. D. C. Peterson)은 교육내용을 ‘지적 활동의 주양식(主樣式)’으로 규정하면서 네 가지 양식으로 나뉘므로써 각각 학문 및 교과 구별의 체계를 제시했다. 피닉스의 ‘의미의 영역’은 ①상징적 의미, ②실험적 의미, ③심미적 의미, ④실재적 의미, ⑤윤리적 의미, ⑥총괄적 의미이고, 피터슨의 네 가지 양식은 ①윤리적 양식, ②실증적 양식, ③도덕적 양식, ④심미적 양식의 네 가지를 든다.(이홍우, 2000 ; 5장 및 6장 참조)

(5) 감화적·문학적 수사는 논술의 금기인가?

언어의 기능이나 용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지만, 정보 전달의 기능·용법과 심리 감화의 기능·용법이라는 오그덴과 리차즈(C. K. Ogden & I. A. Richards)의 이분법은 가장 흔하게 통용되는 구별법이다. 전자는 지시적, 전달적, 과학적 용법 등의 별칭을, 후자는 정서적, 감화적 용법 등의 별칭을 지닌다. 전자의 용례로 흔히 동원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전식 설명이고, 후자의 용례로는 흔히 비유와 같은 문학적 표현을 든다.

일반적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의 언어는 이 중에서 전자의 기능에 기대다. 이는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하며, 상황하지 않고 간결해야 한다는 글쓰기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모든 글쓰기에서 두루 적용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론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혹은 상황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장식적 수사는 문학에서마저도 금기 사항이다.

문제는 논술의 언어가 주로 지시적 용법 혹은 전달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기술적(descriptive) 진단이, 논술에서는 언어의 정서적, 감화적 기능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prescriptive) 처방으로 곧장 치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별개의 차원이다. 언어의 두 가지 기능이나 용법이 선명하게 구별될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배타적일 수도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용법을 구별하여 지시적, 과학적 기능을 절대적인 덕목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매개적 비약과 성급한 일반화의 결과일 따름이라 하겠다.

설복(說伏/說服)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담론은 물론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문사의 입장을 전파하는 신문 사설에서 속담이나 비유적 표현이 곧잘 등장하는 이유를 고려해 보면, 설득이 오직 근대적 이성의 영역이 전담하는 역할은 아님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이성적 설득만이 가치를 갖는다는 합리주의적 신념은 이 점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다소 범박하게 말한다면, 논술이 텍스트의 목적상 설득 장르에 포함된다면, 설득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글쓰기의 기법이나 장치는 모두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논술이 ‘감동’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어적 감화적 용법이 실현된다면 적어도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감화적 용법이 논술에서도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하는 당위는 그것이 글을 쓰는 주체의 독창성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력한 단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어떤 사태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경우, 상투화된 비유를 예외로 하면, 그 표현에는 당연히 글을 쓰는 주체의 개성과 독창이 녹아들게 마련이다. 나아가 거기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과 신념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 따라서 비유를 비롯한 감화적 표현이 단지 수사적인 효용만을 갖는다는 것도, 또 그것이 문학의 전유물이라는 것도 커다란 오해라 하겠다.

언어의 감화적 용법이 단지 수사적 효용의 울타리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결국 감화적 표현이 정의적 사고력을 밑받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운율, 반복, 과장, 대구, 유포나 유머 등이 연설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이유도 메시지 전달의 감화적 효용성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을 문학적 기교로만 간주하면서 논술에서 이를 배제해야

4) “은유는 가장 시적이면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명제(올리비에 르볼, 1994 : 154)가 겨냥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다.

한다고 하는 것은, 감화적 통달이라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덕목을 간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논술 문항 구성 전략의 변인

평가 도구로서의 논술 문항은 논술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구성 전략이 달라진다. 배경 지식(절대적 양, 정확성, 활용 능력 등), 독서 체험, 독서 능력, 표현 능력(내용 조직 능력 포함), 사고력, 창의력 등 논술 작성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평가의 목표는 곧 한 편의 논술을 작성하고자 할 때 동원되는 모든 요소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말한다.

일반적인 논술 문항은 주어진 텍스트(지문)를 읽고 발문에서 제시하는 화제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 때 주어진 지문은 내용 생성의 단서로 작용하기도 하고, 비판적 독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개방성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변인들이 작용하는 방향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이는 곧 텍스트의 원심력과 구심력 중 어느 방향의 힘을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경우 지문으로 주어지는 텍스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제만 제시될 수도 있고, 오직 텍스트 자체의 해석과 비평만을 요구할 수도 있다. 논술 작성자들에 의해 주어진 텍스트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열어 두면 텍스트의 원심력이, 발문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하면 텍스트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해석의 개방성 정도는 결국 반응의 자유도와 직결될 것이다. 논술에서 반응의 자유도는 그 유형에 따라 연속적이지만, 관습적으로 논술의 유형은 응답 제한형(the restricted response type)과 응답 개방형(the extended response type) 두 가지로 나눈다(이삼형, 1994). 목적과 목표,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겠지만, 이왕 문학을 활용한 논술이라면 고급적 응답 개방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독서 체험, 독서 능력, 표현 능력

지문으로 주어진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논술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독서 체험, 독서 능력(이해 능력), 표현 능력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논술 작성자는 일차적으로 지문을 읽는 데 지적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데, 지문의 오독은 곧 논술 내용상의 오류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유형의 논술은 독해력을 포함한 독서 능력 평가도 겸하게 된다. 그것이 의도의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독서 능력이 논술 작성, 곧 쓰기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가 하면 독서 능력이 배제된 논술 능력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지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발문을 통해 지문 독서의 방침을 미리 정해주거나, 아예 지문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화제만 제시하면서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을 독해하는 절차가 최소화되거나 생략되므로, 독서 능력에 대한 평가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의 독서 체험마저 아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논술의 내용 생성에 단서를 제공하는 지문이 배제된 경우에는, 기존의 독서 체험이 거의 유일한 내용 생성의 근거가 되고, 독서 능력이 아닌 독서 체험이 평가의 한 초점이 된다. 여기에 독서 체

험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논제일 경우, 독서 체험은 논술 능력에서 매우 큰 비중으로 자리하게 된다.

(2) 텍스트 완결성, 상호텍스트성

지문으로 주어지는 텍스트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도 해석의 개방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통상적으로 논술 문항에서는 지문이 복수로 제시되는데, 복수의 문학 텍스트, 복수의 비문학 텍스트,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 복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복수의 비문학 텍스트 지문을 논외로 하면, 텍스트가 복수로 제시되면 단수로 제시될 때보다 해석의 개방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 등 텍스트 상호 간 연결 고리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 포함된 논제에서 제시문이 단수와 복수인 경우 중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오직 출제 전략에 따른 선택일 따름이다. 단일 제시문이라고 해서 해석의 개방성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해석의 개방성 정도가 크다고 해서 바람직한 논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문제 발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발문에서 논제를 제시할 때 화제를 어느 정도로 초점화하는가에 따라, 문제 발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상대적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발문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독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와, 포괄적으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그와 관련된 논제를 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논제를 출제진이 제시하고 논술 작성자는 이에 답하는 관계이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심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논술 작성자 스스로 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밟으므로 문제 발견 능력이 중심이 된다.

일반적인 논술 문항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발문을 통해 출제 의도를 뚜렷이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논술 작성자가 논점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미덕을 가진다. 그러나 논술 작성자의 문제 발견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고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를 갖는 것이다. 문학을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논술이라면, 문제 발견 능력에 대한 평가도 아우르는 것이 문학 제재의 의의를 살리는 길이다.

4. 새로운 출제 전략 몇 가지

이제 앞에서 진술한 전제적 문답과 논술 출제 과정의 몇 가지 변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출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는 몇 가지 전략들은 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논술 관련 경시대회나 신문 등을 통해 이미 활용된 경우도 있다. 다만 논술에서 문학을 활용하고자 할 때, 문학 작품이 제시문으로서 가지는 의의를 최대한화하는 방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참조하여 구안해 본 것이다.

(1) 단서 최소화 전략

<예시 1-1>

※ 다음에 주어진 글의 어느 한 구절 혹은 문장을 첫 문장으로 삼아 글을 완성하시오.
*시 한 편이나 소설의 한 대목을 지문으로 제시

<예시 1-2>

※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첫 문장으로 삼아 글을 완성하시오.
*시의 한 구절이나 소설 속 문장을 지문으로 제시

대부분의 논술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그 결과를 논의의 출발점이나 단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독서 능력 평가를 겸하는 문항으로서 지문의 구심력을 더 강화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문학을 지문으로 활용하되, 단서를 최소화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시 1-1>과 <예시 1-2>는 모두 논술문의 첫 문장을 문학 작품의 한 구절로 시작하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주 채택되는 인용의 전략을 논술 문항 자체가 흡수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항에서 주어진 구절은 작품 전체의 맥락이나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논술 작성자가 임의로 그 뜻을 해석하여 자신의 문제나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결시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2) 문제 발견 능력 활성화 전략

<예시 2>

※ 다음에 주어진 시에서 시적 화자의 세계 인식 방법을 서술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지 그 미덕을 논술하시오.
*시 한 편을 지문으로 제시

한 편의 문학 작품에서 시인 혹은 작가의 의도(intention)와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meaning)를 읽어내고 이를 자기화하여 그 의의(significance)를 발견하는 것은, 문학 읽기의 일반적 과정이다. <예시 2>는 일단 문학 평론가를 논술 작성자의 역할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 평론이 넓은 의미의 논술에 속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성립 가능한 논제이다. 논술 작성자가 스스로 작품의 의도와 의미, 의의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면서 해석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구안된 것이다. 작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그것이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요구하고 있다. 소설이나 다른 서사 장르의 작품을 제시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독서 체험 활성화 전략

<예시 3>

※ 발문
*<조건> 1. 문학 작품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사례를 활용할 것

문학이 교육적으로 두루 가치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질서와 삶의 섭리를 두루두루 경험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 경험한 바는 하나의 전형으로 자신의 삶에 밀착해 들어오게 된다. 삶의 특정한 국면에서 시의 한 구절, 소설 속

인물이나 서술자의 언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예시 3>이 겨냥하는 것은 논술 작성자가 문학 독서 체험을 얼마나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 자신의 독서 체험을 직접 끌어 들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나 논의의 단서로 활용하면, 내용을 풍부하게 함은 물론이고 논지 전개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인용하는 경우 그 단위는 구절 단위, 문장 단위, 이야기 단위 모두가 가능할 것이다.

(4) 요약 능력 연계 전략

<예시 4>

※ 다음에 주어진 이야기를 요약하고 이를 서론으로 삼아 …… 논술하시오.

<예시 3>의 독서 체험 활성화 전략에서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인용을 요구하지만, <예시 4>는 요약 능력과 연계시킨 유형이다. 요약이 논술 자체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요약이 논술 문항과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요약과 논술이 별도로 위치하는데, 두 가지 능력을 연계시키면 이와 같은 유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요약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는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므로, 비교적 분량이 적은 설화나 우화와 같은 서사 장르가 적절할 것이다.

(5) 자기 초점화 전략

<예시 5>

※ 다음에 주어진 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혹은 화자)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그 중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인물(혹은 화자)을 택해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 논술하시오.

*두 개 이상의 복수 지문 제시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글쓰기 주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된다. 그러나 논술이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과 태도를 겨냥하는 유형이라면, 논제 자체에서부터 글쓰기 주체의 노출을 유도해 볼 만하다. 모든 논술이 ‘지금-여기-우리’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 공리인 이상 ‘나’의 존재를 글에 드러내도록 요구하자는 것이다.

<예시 5>는 이러한 취지에서 창안된 유형이다. 발문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논술 작성자는 필수적으로 ‘나’의 삶을 성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자기를 초점화한 논술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6) 범교과 연계 전략

문학은 삼라만상을 모두 다룬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어 왔던 사회 문제, 한 인간의 생애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곡절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학의 소재이다. 생로병사의 한 생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투쟁과 좌절이 모두 문학의 가장 전통적인 레퍼토리이다. 분단과 통일, 민주주의, 양성 평등,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 인권, 소외, 저출산 고령사회, 세대 간 단절, 생태 위기 등과 같은 시사적인 문제도 문학은

비껴가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은 어떤 분야보다 앞서서 인간의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측수가 민감하다. 따라서 문학은 범교과적 차원에서 논술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5. 맺음말

논술이 평가 도구인 한, 논술을 통해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발, 분류, 예언 등에 이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꼭 같은 이유로 그것은 또한 교육 목표 달성에 관한 증거로 이용되어야 마땅하다. 달리 말해, 논술이 단지 그 결과로서 작성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그것이 당연히 그의 미래까지 예언해 준다고 보는 대신, 그에게 필요한 학습 동기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로 지적 성장을 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성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도 논술이 평가 도구라는 실용적 목적을 떠나 한 개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논술은 정규 교과 시간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 교과의 정상화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유력한 기제여야 하고,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여야 하며, 사고력 발달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수행이어야 함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논술에서 문학을 활용할 때,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논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몇몇 전략을 사례로 제시해 보았다.

거듭 말하거니와 논술이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입이라는 제도에 의해 덧씌워진 실용주의적·형식주의적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선발과 분류라는 실용적 목적을 넘어 개인의 성장이라는 교육 본질적 목표가 전면으로 포진해야 하고, 이에 따라 출제와 수행과 채점의 전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도 논술 텍스트의 형식적 요건에 집중하는 경향을 넘어, 역시 한 개인의 삶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무엇이든, 그것이 실용으로 치우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으로 경도되면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대행(2006), 『문학교육 뜯짜기』(개정판), 역락
- 김영정(2005), 「논술의 개념과 특징(수정본)」 <http://logic.snu.ac.kr>(서울대 철학과 김영정 교수 강의 게시판)의 ‘자료실’ 중 ‘비판 창의 자료’ 게시판
- 이삼형(1994), 「논술의 평가」, 『논술 지도의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이홍우(2000), 『교육과정 탐구』(증보), 박영사
- 올리비에 루블(1994),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Abstract>

The Strategy of Construction of Critical Writing[Nonsool] Problem

Ryu, Su-yeol

The nonsool as evaluation tool is used not only for measurement of learners' ability, selection, classification and prophecy but also must be used as the evidence of achievement of educational goal. In other words, nonsool is to be the cue indicating the learner's state or situation like what need should be satisfied for the promotion of learning motivation, how does he/she grow intellectually etc. Because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is personal growth.

This essay concentrate on how can nonsool contribute to personal growth of learners. For this, first of all nonsool is to free from measurement tool. This essay emphasize that nonsool is to settle down as the useful mechanism for not huddle but normalization of regular subject, the channel in which learners show their individuality and identity, the immediate performance. And this essay presents different strategies that can be used for construction of the evaluation problem which utilize literary works.

key words : critical writing[nonsool], literature-based nonsool, strategy of construction nonsool problem, genre of nonsool, 'I' in nonsool text, affective rhetoric.